

## 대학교육을 생각한다

해방이후 이 땅에 대학이 터를 닦기 시작한 지 어언 반세기가 되어간다. 그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된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대학들은 황무지를 일구는 심정으로 척박한 학문의 토양을 가꾸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남다른 교육열에 힘입어 우리의 대학은 이 짧은 기간에 세계 대학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팽창을 하였다. 지난날의 양적인 팽창에 이어 우리는 이제 대학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되며, 이 점에서 한번쯤 우리 대학교육의 현실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제화와 선진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현실에 대한 분명한 성찰이 없이는 이런 말들이 한낱 구호에 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교육을 평가하라고 하면 많은 뜻있는 분들은 대학교육의 '파행적 운영'이라는 말에 동의할 것이다. 대학교육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재정난이다.

재수생 및 입시지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행된 1980년 교육개혁 이후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인 팽창을 하면서 갑자기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적정의 전임교원과 교육공간 및 교육시설의 확보가 큰 현안문제로 등장하였다. 특히 80년대의 거센 학생운동의 영향으로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실질 물가상승률을 계속 밀돌면서 대학의 재정난을 한층 가중시켰으며, 이는 또 대학교원의 처우개선에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결국 대학교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시설과 전임교원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대형강의밖에 없다. 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형강의를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거의 모든 교양과목 수업이 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외국어 강의까지 100~150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러한 상황은 전공강의에서도 역시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 중등학교에서도 반의 크기가 50명 이하로 내려가는 마당에 대학의 강의실은 학생수가 많아서 교수와 학생의 개인적인 만남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익명성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리포트 한 편 제대로 검사하고 교정해 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투영기나 비디오 등 시청각 기자재 하나 변변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강의실이고 보면 대학의 교육환경은 중등학교보다 훨씬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보다 못한 대학의 수업환경은 잔뜩 기대를 하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을 첫 학기부터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며 교수들이 이러한 학생들을 장악하고 진지하고 충실한 수업을 진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대학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원인은 이같은 외적인 환경조건 이외에 학생들의 내부적인 갈등에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 80년대 이후 대학교육은 소수의 전문 엘리트 교육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대학 졸업자의 상대적 가치 절하를 의미하며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난으로 연결된다.



전남대 총장 최한선

대졸자들의 취업난은 두 가지 면에서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취업난은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의 목표의식을 잃게 하고, 그 결과 이들의 전공공부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 과거 취업난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때는 대학생활에 낭만도 있었고 학생들은 전공공부에도 곧잘 응했으며 교수들은 이를 강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부할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데리고 형이상학적인 학문을 논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질없이 생각되기조차 하는 것은 지방대학의 특수한 현상만은 아닐 것이다.

취업과 관련해서 대학교육을 파행적으로 이끄는 더 큰 요인은 대학졸업자들을 뽑는 취업시험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즉, 대부분의 취직 시험이 대학의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평가하고 있고, 또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대학성적의 하한선(평균 B학점)이 전공공부에 별로 구속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대학의 '전공공부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취업이 어렵더라도 취업시험의 내용이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대학 교육이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공과대학이나 약학대학, 의과대학처럼 전공과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분야는 경우가 다르다. 그러나 그 밖에 취업난이 심각한 많은 분야에서 학생들은 이중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전공수업에 들어가 학점을 따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공의 내용과 별도로 취업공부를 해야 한다. 독문과나 불문과, 중문과의 학생들이 자기의 전공 외국어는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조금씩 하고 도서관에서는 주로 영어공부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웃지 못할 현실이나, 많은 경우 우리의 대학생들은 이중으로 적을 두고 있다. 즉, 이들은 취직의 자격요건인 대학졸업장을 따기 위해 대학에 적을 두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취직시험 준비를 위해 1년 내내 시중의 취업대비 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우리의 대학에는 젊은 엘리트 교수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대학교수의 수준은 점점 높아가는데 연구여건과 교육환경 및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수들이 이 점에서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환경에 순응해 비리고 마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최근들어 각 대학에서는 강의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강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비한 강의환경이나 침체된 학생들의 수업 분위기를 생각할 때 지지부진한 수업의 원인을 교수의 성의부족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무엇인가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진지한 학문적 논의가 없는 대학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단순히 고등학교의 상급학교일 뿐이다. 국제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다시피한 시점에서 본체도를 일탈해 있는 우리의 대학교육을 우선 정상체도로 끌어 들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든다. ■